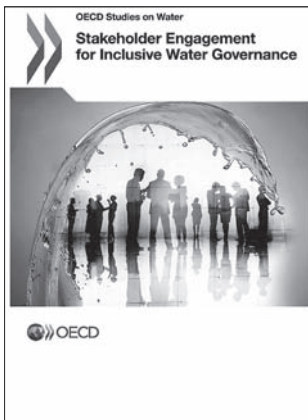


Stakeholder Engagement for Inclusive Water Governance

최 중 대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jdchoi@kangwon.ac.kr



제목 Stakeholder Engagement
for Inclusive Water Governance
저자 OECD

발행인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087/9789264231122-en>
ISBN 번호 978-92-64-23111-5 (Print)
978-92-64-23112-2 (PDF)
발행년도 2015

본 보고서는 OECD에서 수행하는 Series: OECD Studies on Water의 보고서로 출간되었다. 프린트된 책이나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고 또한 OECD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oecd.org/gov/water>)하여 on-line으로 읽을 수 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물 관련 영역에서 이해당사자 협치의 현재경향, 추진동력, 장애요소, 진행구조, 영향, 비용과 혜택의 평가이다.

OECD는 2050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40% 정도는 물부족지역에 살고, 2억4천만명 이상의 인구는 상하수처리가 미흡한 지역에 산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자원의 관리는 물 정책을 관장하는 공공관리자와 물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공공정책은 향후 이해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 목표나 지역의 요구도도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결과중심적, 목표지향적, 이해당사자 참여적 물관리 정책을 위한 6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당사자를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정책결정, 이해당사자의 참여목적, 그리고 정책가용자료 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의한다. 셋째, 예산과 인력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결과지향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넷째, 정기적으로 이해당사자 참여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배우고, 적응하며 또한 개선할 수 있게 한

다. 다섯째, 이해당사자의 참여내용을 제도, 지침, 그리고 책임기관에 명시하고 집행하게 한다. 그리고 여섯째, 필요에 따라 이해당사자 참여의 형태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유지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고서는 요약문, 평가결과와 제안, 8장의 본문,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약문은 보고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였고, 평가결과와 제안에서는 다소 구체적으로 요약문을 보완하고 있다. 본문에서 제1장은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물 의제, 제2장 물 영역에서 이해당사자 참여의 추진동력, 제3장 모든 수준에서 물 관련 이해당사자의 파악, 제4장 이해당사자 참여의 장애물, 제5장 이해당사자 참여의 구조, 제6장 이해당사자 참여결과의 평가방법, 제7장 이해당사자 참여와 협치: 공공참여를 위한 핵심원칙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제8장 이해당사자의 구분과 특성 등이다. 그리고 6개의 부록에는 국회, 농업, 통상, 언론부분에서의 이해당사자 참여, 사례연구, 그리고 OECD 연구의 협조기관 등에 대한 소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물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 수자원의 공급과 배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물값 문제에서도 본 보고서는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